

I. 통상현안정보

■ 아시아지역, NAFTA/EU 에 이어 하나의 경제권으로 부상

- 생산 증가와 소비증대로 인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2007 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3,000 억불 규모의 소비시장
-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단순히 세계의 생산 공장을 뛰어넘어 최대 소비 시장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됨.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소비의 핵심세력인 중산층의 폭이 전체 인구에 비해 넓지는 않지만, 성장 잠재력 면에서 조만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음.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70, 80 년대 경제 성장 모델은 낮은 부가가치 제품을 대량 생산하고 적극적인 해외 수출 및 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이러한 성장 모델이 최근 아시아 경제 상황과 성장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 Master Card International 사의 경제 자문인 Yuwa Hedrick-Wong 씨는 쌍둥이 변혁(Twin Revolution)이라 불리는 이른바 ‘소비변혁과 지역내 아웃소싱 변혁’이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함. 쌍둥이 변혁은 아시아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탈바꿈 시키고 있으며, 상호 작용을 통해 경제성장 속도를 배가 시키는 성장 원동력이라고 언급하였음.
- CLSA 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Jim Walker 씨는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가 제품 수출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쌍둥이 변혁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경제의 틀을 재구성하고 무역 성향을 크게 변화 시키고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음.
- 주요 아시아 선진 공업국의 對중국 수출은 지난 몇 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무역 거래 성향도 크게 변하고 있음. 대만의 전체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5.4%로써, 전년대비 약 80%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또한 일본은 전체 수출의 12.2%를 중국에 수출하여 전년대비 약 67.6% 정도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한국의 경우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 국가로 부상되었으며, 對중 수출이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증가율은 47.8%를 기록하였음.
-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 변혁에 있어서는 공업화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가 전체 소비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 동안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 패턴은 일부 엘리트층에 의해 소비되는 고급제품에 한정되어 있었음.
- MasterCard 사가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중산층 수는 2002 년 약 6 천 4 백만 명에서 2010 년 1 억 5 천 5 백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대만은 천 7 백만에서 2 천 3 백만 명으로, 그리고 태국은 천만 명에서 2 천백만 명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으로 인해 2007 년 아시아 지역 소비 시장은 연간 약 3,000 억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아시아 지역내 아웃소싱 변혁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특정 산업으로 특화되거나 세분화 될 것이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최근 아시아 개발은행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웃소싱 이득은 자유 무역의 이득보다 약 20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지역 아웃소싱 변혁에 대한 증거로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음. 유엔 통계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무역 거래에서 약 30 개 주요 품목이 전체 무역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30 개 품목 중에서 완제품은 단지 8%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음. 국가간 활발한 부품 무역 거래는 각 나라별로 특정 산업에 대한 특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시아는 더 이상 노동집약적이고 저 부가가치 제품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아니며, 전체 자원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음. 유럽연합은 법과 국가들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었지만, 아시아 지역은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NAFTA 와 EU 에 이어 또 하나의 거래한 경제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문의처 : 시카고무역관 황선창 khwang@kotrachicago.com)